

코로나19 여파 속 수출계약 성사

도, 도내 중기6곳과 6개국 해외 바이어 1895만 달러 계약 체결



코로나19 여파에도 도내 중소기업이 중국 등 6개국 해외 바이어와 1895만 달러(210억원)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성사한 가운데 1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하진 도지사,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 및 도내 기업대표들이 수출계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도내 중소기업이 중국, 베트남, 태국 등 해외 바이어와 대규모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전북도는 1일 도내 중소기업 6개사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등 6개국 해외 바이어와 비대면으로 1,895만 달러(210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 등 관계자와 고려자연식품(주) 이동희 부사장, (주)비스 소대성 대표, 삼성농원 김은중 대표, (주)우리엔비 박상협 대표, 필상생명과학(주) 이종두 대표, (주)한호기술 김경근 대표 등 기업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실제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 ▲전북형 수출마중 지원사업 ▲포스트 차이나 신시장 개척지원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세계경제가 급속한 침체를 겪고, 해외 출장도 제한받는 등 마케팅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최악의 여건 속에서 거둔 값진 성과이다.

도는 등남아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통상거점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에도 침구류 제조업체 (주)비스의 현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인도에 60만 달러 수출계약을 도왔고, 베트남 식료품유통 전문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상담을 주선해 삼성농원의 워터젤리 건강음료 100만 달러 수출을 이끌어 사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주)우리

비엔비는 혈액응고와 혈전방지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기초원료 헤파린을 중국 의약품 제조회사에 1,000만 달러, 필상생명과학(주)은 그래핀 마스크를 태국에 300만 달러, (주)한호기술은 전동스쿠터를 일본에 300만 달러, 고려자연식품(주)은 액상차를 브라질에 135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해외 판로가 막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일궈낸 값진 성과다"면서 "앞으로도 성장가능성과 기술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선관위 '공명이사랑나눔회' 독거노인 위한 선풍기 30대 기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사랑나눔회'는 1일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사랑의 선풍기 전달식'을 갖고 무더위로 어려움을 예상되는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세대에 선풍기 30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풍기 기부는 점점 폭염의 기세가 강해져 여름을 나기 힘들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봉사사업이다.

전북선관위 김영갑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꾸준히 봉사하며 도민들과 함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편슈머 식품' 규제 방안 마련되나

민주 김성주 의원, '식품 표시·광고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편슈머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식품업계에서도 편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 디자인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체를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편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편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떡볶이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편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 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편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편슈머(Funsumer)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자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하며, 최근

'구두약 초콜릿', '떡볶이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편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제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천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편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편슈머 식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편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선관위, 현역 군수 한 명 선거법 위반 조사

한 명 선거법 위반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도내 현역 군수 한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군수 이통과 지역을 말한 수 있지만 군수 한 명의 선거 위반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혐의 내용에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는 신고자가 직접 자료와 증거물을 가지고 해당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접수했으나 해당 군선관위는 '사건이 크다'며 관역(도) 선관위에 이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고자 A씨는 지난 5월 말 하루 10시간씩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근에 따르면 해당 군수는 매년 명절마다 선거 조직원 300명에게 선물세트(시가 3만원~4만,000원)를 돌렸다.

특히 해당 군수는 측근 인사들에게는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현금을 직접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선물세트 제공 명단은 물론 현금 제공 명단까지 선거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군수는 이 같은 명절 선물과 현금을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조합 가게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호상 기자

"모든 일 공정히 처리할 것"

대검 첫 출근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신임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첫날 출근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대검청(대검)으로 첫 출근한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회가 무량하다"며 "해야할 일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살펴봐야 할 현안 수사들에 대한 수사지휘 방침에 대해선 "아직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하나씩 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만큼 내일은 박법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다"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스

올여름 '2차 추경' 드라이브

민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업 손실보상 재원 확보 등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추경)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업 손실보상 재원 확보를 골자로 '여름 추경' 편성을 공언하고 있어, 6월 입시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매듭짓고 추경 논의에 착수할 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끝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며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고 주문한 것에 호응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추경 처리 시점도 이른 오는 7월까지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여름 휴가철 즈음에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펴

겠다는 것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적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경제가 활성화되기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시점을) 여름 휴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재정 부담이 줄어든 것도 추경 편성 논리에 힘을 실고 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1분기 국제 수입은 88.3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었다.

추경 규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재원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1차 추경)에만 총 14조 3000억원이 소요됐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보고에서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손실을 3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연간 6조6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아직 당장만 추경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장 논의 과정에 서 구체화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지급액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야 추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